**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4B, 마태복음 8-9장: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이고, 여기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예수의 권위에 관한 4B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함께 제공합니다. 보충 자료의 20~21페이지에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인 21페이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마태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제시했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 후, 이제 마태는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권위 있는 자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기적적인 말씀과 기적적인 일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계산한 것입니다.

7장 28절과 29절에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8장 9절과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식, 그리고 물론 묵시적으로 그분의 기적 행적 또한 그러한 권위를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선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21페이지의 도표에서 언급했듯이, 8장과 9장의 이 기적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 절반에 세 가지 치유 기적이 세 세트, 혹은 세 주기로 나열되어 있고, 그 뒤에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기는 8장 1절부터 17절까지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과 두 제자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기는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로, 세 가지 기적, 즉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귀신 들린 자와 마비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신학적 새로움의 개념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주기는 9장 18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기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서 딸과 여인이 모두 치유받고, 이어서 눈먼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난 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며 추수할 밭에 더 많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촉구하시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 장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땅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9 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신 것, 그리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제자들을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첫 번째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세트에 포함된 세 가지 기적 이야기는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 그리고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모두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이며, 두 이야기 모두 레위기 13장 49절, 14장 2절, 8장 4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과 8장 17절의 성경 구절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이야기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트에서 주요 이야기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마태의 또 다른 핵심 모티프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방인들. 마태는 자신이 접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왜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한 여인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선택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친구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병 환자는 의식상 부정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기능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장교는 자신의 제국이 점령한 땅의 유대인들에 대한 군사적 권한을 가졌을 것이지만, 그의 민족성 때문에 종교적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의식상이나 민족적 장애는 없었지만, 그녀의 성별 때문에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많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구도 성전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전하는 치유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당대 사회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낙오된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놀라울 정도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저속한 여인부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이한 점성술사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병 고침받은 사람들까지, 마태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집단임을 자주 보여줍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마태복음 10:5, 6)뿐 아니라 모든 민족(마태복음 24:14, 28:19)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시아 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사역의 모델로 제시 합니다. 마태 공동체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식적 순결, 민족적 배타주의, 성적 고정관념과 같은 이해될 수 있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하며, 오늘날 모든 기독교 공동체 역시 자신의 근시안적인 관점과 그에 상응하는 영역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질병, 민족, 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이 어떠하든, 우리는 스승의 모델에 복종하고 스승처럼 외부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브루너의 주석과 키너의 주석 모두 이 자료 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다음으로,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치유와 속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언급하며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고통, 질병, 죽음은 원래 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죄로부터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구원(로마서 8장 23절)과 고통의 종식(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귀신 쫓아냄을 미래의 현실이 깨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11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특히 12장 28, 29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육체적 질병 치유를 그분의 치유 사역과 대속적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치유들은 예수님의 구속이 가져올 궁극적인 종말론적 결과의 표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점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그리스도인이 결코 병들 필요가 없다는 관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속죄에 치유가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는 그러한 치유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에서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치유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죄를 통해 이미 치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치유를 그저 언급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 아닌, 그분의 지상 사역에 적용합니다. 이 기적들의 요점은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치료가 아닌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치유에서 믿음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음 두 가지 치유, 즉 나병 환자와 관리인의 하인의 치유에는 믿음이 분명히 관여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관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서는 누군가의 믿음이 치유를 촉진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치유 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함과 섭리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주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권적 섭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에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다음으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두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8장 18절부터 20절 까지 에서 그는 감정적인 열광에 사로잡혔 지만, 순회 사역에 수반되는 희생을 이성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 쏠려 있었고, 이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장 21절부터 23절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적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참된 제자는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 마저 박탈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수반된 희생을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싶어 하는데, 이는 창세기 50장 5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을 고려할 때 타당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반박하시는 맥락에서, 토라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율법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의 요구가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10장 37절, 13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모두 충실한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의 열정은 제자도의 대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사람의 소심함은 그 대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대가를 헤아려 본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박탈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믿음을 조절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질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바랍니다 . 하지만 마태복음의 침묵은 냉정함을 자아냅니다.

이제 두 번째 주기로 넘어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자연의 주님임을 보여 주셨지만, 마태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을 보면 자연 기적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8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는 두 사람이 항해를 지연시키는 듯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독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폭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서(6:30 , 14:31, 16:8 비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폭풍의 도전과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후, 그들의 믿음은 표면적으로는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박해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질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정확성에 정비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8장 26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이 진행 중이고 배가 침몰하려 할 때, 폭풍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이는 고대와 현대 제자들 모두의 최우선 순위가 삶의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한 그분은 어려움들을 쉽게 헤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 중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9장 1-8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구사전을 구하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의 세부 사항은 놀랍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라"라는 단 한 마디 말씀만으로도 귀신들과 짐승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 7장 28-29절과 행적 8장 9-9장 6절의 권위는 마태복음 8장과 9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가 그분의 자비와 함께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4장 23절 이후 그분의 사역에 내재되어 있던 것과 같은 자비로 이 위험한 귀신 들린 자들을 대하셨으며, 9장 36절에서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본보기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분명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10:13-15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선교 여행이 일부 가정과 마을에서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스승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배척과 박해에 현실적으로 맞서야 합니다(10:24-33).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을 향한 최선의 의도가 때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 :6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에서 스스로를 제외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에 대한 카슨의 신랄한 논평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 보다 돼지를 , 구주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이 충실하게 전파될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8장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세 가지 기적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측면인 죄 사함으로 확장합니다. 마태복음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7장 28-29절)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음을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권위 있게 병을 고치신 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에 대한 권위는 권위 있는 말과 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위는 죄의 징후인 문제와 질병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죄를 가르치는 것은 죄에 대한 가르침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죄의 용서를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조만간 다시 병들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다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권위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명의 핵심입니다(1:21).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20:28),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26:28은 예레미야 31:31과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성한 특권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신성모독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개별 사례에서 죄가 질병의 원인인지 진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임을 아셨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브루너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심신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죄 사함이 그의 마음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어 그를 치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사람의 마비의 이유가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의인들은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에서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인류는 첫 조상의 반역으로 인해 질병과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통해 새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즉시 해방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육체적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 편 3절 과 비교해 보십시오 .

예수님의 치유는 죄와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태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방식이 화해적인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신성모독 혐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고유한 지위와 모순되며, 이 경우 어떠한 온건한 타협도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9시 34분에 곧 드러나겠지만요.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살펴본 후, 이제 두 번째 주기인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일부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분개한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태가 부름받은 후 9장 9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름받은 후, 마태는 이전 동료들과 새로운 동료들을 위해 만찬을 열었습니다(9장 10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비난조로 질문합니다(9:11).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은 이 논쟁에서 비롯됩니다. 9:12과 13은 호세아 6:6과 비교됩니다.

율법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호세아 5장 17절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심으로써 호세아 6장 6절의 이상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제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호세아 8장 1-17절에서 나병 환자, 로마 장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향한 사역을 통해 그러한 이상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국 사역은 의식적 부정함, 민족성, 성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낙인도 그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바람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역을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제사 제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율법 준수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그들의 논평에서 내면의 믿음과 진심 어린 충성심 없이 제의적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0절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역 모델에 반대합니다. 마태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능숙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직접 전달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그들이 대답할 수 없거나 대답하지 않으려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로써 심문의 패턴은 사실상 종식됩니다. 특히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과 사귀신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삶과의 분리를 개인의 진실성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신의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류는 윤리적인 타협을 피하기 위해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러한 타협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마 5:13-16).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길입니다.

이 두 번째 주기에 나오는 제자 훈련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은 금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즐기며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과 모세,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관계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간증 기사가 예수님과 모세, 이스라엘과 교회, 율법과 은혜 사이의 근본적인 상충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5장 17-20 절에 비추어 볼 때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신랑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동안 신랑이 잠시 함께한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인 잔치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짧은 메시아적 기쁨의 시간 동안에는 금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므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기쁨과 헌신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한번 금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17절은 어떤 해석으로 보더라도 성경 신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에 대한 핵심 본문입니다. 위에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모세를 대신하는 직설적인 대체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 예수님이 데려가신 후 제자들이 금식했을 때 마치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금식 전통을 지지하지 않으셨지만, 6장 16-18절에서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모두 보존되도록 마지막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가 모두 보존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가 모두 보존된다는 뜻입니까? 마태 복음 5장 17-20절을 종합해 볼 때, 두 번째 선택이 가장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교사로서 예수는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을 반복함으로써가 아니라, 연속성을 과장하거나, 불연속성을 과장하는 과거의 가르침을 무뚝뚝하게 버림으로써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함으로써 그것들을 보존합니다.금식은 보존되지만, 바리새 전통의 오래된 맥락이 아니라 시작된 왕국의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보존됩니다.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와 제자도의 치유와 기적의 세 번째 주기로 넘어갑니다.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는 다시 한번 육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지만, 익숙한 주제가 여기에서는 9장 20-22절의 한 이야기와 9장 18-19절에서 시작하여 9장 23-26절에서 끝나는 또 다른 이야기의 틀 안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두 이야기 모두 치유의 수단으로서 접촉을 시작하는 믿음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마태복음의 이중 이야기는 매우 압축적입니다.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초기 이야기의 결말을 지연시키고 독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이중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기적은 인간 존재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부모의 깊은 사랑과 만성 질환의 고통을 다룹니다.

이 경우, 만성 질환은 의례적인 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배척으로 이어집니다. 회당장은 어린 딸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그녀를 만져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며 죽음의 권세에 맞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한 가족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미-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개념을 떠올려 보면, 어린 소녀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을 암시합니다. 혈루증에 시달리던 여인은 만성 질환과 그로 인한 의례적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녀의 상태가 관리의 딸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그녀의 절망은 깊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구원을 가리키는 동사 ' 소조 '는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 훨씬 더 큰 구원을 의미합니다 . 8장 17절과 9장 2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다루는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은 인간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론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동정심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그분의 강력한 자비로운 행위로 입증하시는 분으로 제시됩니다. 9:36. 이러한 제시는 다음 두 사건에서 눈멀고 벙어리가 고침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와 함께, 세 번째 이야기인 9:18-34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은 나병, 중풍, 열병, 악령 들림, 실명, 벙어리를 고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9장 35-38절에서 강조되는 자비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보여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6. 마태에게 기적들은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9장 35-38절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38절은 8장 1절에서 시작된 일련의 기적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장의 선교 담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했지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행적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강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9장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메시아로 제시하며, 그분의 말씀과 행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나오는 거의 동일한 요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인용 없이 나열한 두 책을 괄호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와 9장 35절부터 10장 4절은 각각 마태복음 5-7장과 10장의 담화에 대한 서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38절을 4장 22-25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9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행적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모두 하나님 통치 의 권위를 보여주며 , 그분의 행적은 죄를 용서하는 인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38절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4장 22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10장의 선교 담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제시하며, 두 번째 이야기 앞뒤에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 이야기들은 추수 밭에서 일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중적 은유를 통해 표현된 선교 사역자의 필요성 을 독자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한 일꾼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8:18-22). 그들은 아마도 문화의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9:9-13)에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의 왕국 메시지의 새로움을 이해할 것입니다(9:14-17). 이들은 제자들이 9:38 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들은 일꾼들입니다 . 서사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선교 담화에 나오는 엄숙한 지시를 보면, 이러한 일꾼들은 많은 반대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목자이자 추수꾼인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반대는 마태복음 5-9장에서도 암시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의를 능가해야 하며,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당시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넘어 군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종말론적 만찬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 분명합니다(8:11-12). 이 지도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베엘제붑과 결탁한 것으로 비난합니다(9:3-34).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묘사하시고 더 많은 추수꾼을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10:14에서 현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사명에 반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다음 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미 촉발된 점점 심해지는 반대에 맞서도록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이야기합니다.